

민원

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번호	20250915-00006				
제 목	20250914-00001 건의 및 당부(건) 관련 추가적인 건의 및 당부.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25-09-15 13:48:47	답변여부	접수
민원 발생지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구청장, 행정문화국장, 자치행정과, 감사담당관실				
처리부서					
첨부파일					
내용	1.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20250914-00001 추가 건의 및 당부(건) ※ 20250912-00001 3개 제안사안에 대한 건의 및 당부(건) 참조 要. 3. 건의 및 당부 (1) 2025년 9월 16일, 16시에 실시하는 안암동 현장구청장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해당 일시에는 제가 혼자서 중증자폐성발달장애인 아들의 장애인복지관 하관을 돕기 위해 시간이 여의치 않아 참석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또한 제가 드린 제안은 현장구청장실 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 다. 이에 위 관련근거와 같이 제가 드린 현장구청장실 제안을 주민제안으로 전환하여 소관부서를 재 지정하셔서 그 검토(추진여부)를 이어가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② 또한, 오늘 오전 담당팀장과 통화를 하여 위 ①의 설명을 드렸으며, 담당팀장께서는 구청장께 보고를 하였으며, 현장구청장실 행사 시 제가 드린 제안과 관련하여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적어도 지난주에 연락을 주셨어야 하며, 저는 이를 확인하려 전화를 드렸지만,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 및 당부드립니다.				

- ③ 아쉽지만 제 아들의 돌봄으로 인해 저는 해당일 행사 참여가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어떤 것보다 제 아들을 보살피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 하실 답변 또는 설명이 있으시면, 면담 일정을 저와 협의하여 잡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만약, 불가하시면 그 내용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구청장실 담당부서의 이메일을 이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오래전 구청장께서 개인 페이스북에서 저를 차단하셨던 기억이 어렵습니다.
- ④ 그리고 지난 수년간 저는 구청장께 갖은 방법(진정, 구청 온라인창구, 전화 및 방문, 국민신문고 중앙기관, 서울시 옴부즈만, 기타 창구)으로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드렸습니다. 이는 구청 민원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절차와 형식을 물어보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제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한 것이고 구청에서 제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빼앗은 것이라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⑤ 제가 구청장께 면담을 요청드린 사안은 모두 돌아가신 제 치매노모와 크게 다쳤던 중증자폐성발달장애인 아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구청 공무원의 부작위 행위 역시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사안별 중요성을 달랐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제 치매노모와 중증장애인 아들에 대한 주된 내용은 변함이 없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⑥ 이러한 구청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는 구청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북구청의 최고 관리자 또는 책임자는 구청장이십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 면담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① 오랜 경험을 통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께 면담요청을 하려면, 직소민원실을 통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말 역시 이로 인해 구청 2층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은 1년 넘게 감사담당관실, 생활보장과, (구) 어르신지원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직소민원실, 구청장비서실, 행정지원과 등등의 부서를 뱅뱅이를 돌며 얻었던 답이였습니다.
- ② 그리고 오늘 오전 직소민원팀과의 통화에서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별도의 절차나 형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직소민원실은 1달 넘게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메모를 남겨도 연락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때문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직소민원실을 통한 구청장 면담 요청은 그럼 무엇입니까? 구청에서 구민(사람)을 너무 쉽고 함부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대나 대우를 받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존중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③ 제 오랜 경험상, 제가 구청(구청공무원 포함)을 존중해드리면 구청은 너무도 저희 가정과 가족, 그리고 저를 하찮고 쉽게 함부로 대하셨던 기억이 뚜렷합니다. 여전히 그러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부서와 공무원에 한정 됩니다. 시간과 세월이 흘러도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국가행정기관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면 명확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를 행정 갑질과 횡포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공연하신 '매니페스트'의 기본 개념에 입각하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③ 위와 같은 사유로 구청장 면담 요청의 절차 및 형식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담당부서(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시기를 건의드리고 당부드립니다. 현장구청장실 행사와는 상관없는 별도 사항입니다. 매우 중대한 사안이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민이 구청장을 만나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것 또한, 국민의 기본 권리라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각 부서에서 이를 무조건 또는 아무런 이유없이 통제하거나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건의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오니, 조속히 검토하신 후 즉시 적용하고 이행하시길 재차 당부드립니다. 끝.

첨언 : 별도 첨부자료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해당 '건의 및 당부(건)'은 성북구에 주거하는 구민의 공익(구민의 생명안전과 구청장과 구민의 원활한 소통 등)이 포함되어져 있음에 공개로 건의하고 당부드리는 것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이를 구정운영에 반영시켜 올바른 개선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직소민원팀에 건의하겠습니다. 전화를 드리면 녹취한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뭐 별 상관은 없지만,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불쾌하합니다. 퇴직하신 감사과장께서 옛날에 면담 중, 제게 소리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증거 있어!". 저는 구청과의 일처리에 있어 옳은 소리를 했다가 강하게 항의했다가 모략은 당한 적은 있어도 거짓말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ㅏㅏ

[수정](#)[삭제](#)[목록](#)